

선한 일병 조석봉·악한 병장 황장수 실감나네

조현철의 앳된 얼굴·선한 눈매
폭력에 아파하는 조석봉에 딱
아직은 군대 경험 없는 신승호
차가운 폭력 연기 존재감 각인



넷플릭스의 'D.P.'를 통해 군 폭력과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낸 연기자 조현철(왼쪽 사진)과 신승호. 조현철의 뛰어난 감정 묘사와 '군 미필자'인 신승호의 실감나는 연기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가 사실적인 묘사와 이야기로 호평 받고 있는 가운데 새삼 새롭게 시선을 끄는 연기자들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정해인, 구교환 등 주연들 못지않은 존재감으로 군 폭력과 그로 인한 현실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조연 조현철(34)과 신승호(25)이다. 8월27일 선보인 'D.P.'는 탈영병을 쫓는 육군 헌병대 군무이탈 제포조(Deserter Pursuit)의 이야기이다. 조현철과 신승호는 헌병대의 후임병과 선임병 역할로,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하며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조현철...영화 연출 재능까지

'D.P.'에서 여러 성격을 지닌 일병 조석봉 역을 연기했다. 다정다감함으로 주인공인 이병 정해인 등 후임병들을 보듬어준다. 입대 전 '봉디(조석봉 간디)'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다. 앳된 얼굴과 선한 눈매로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

며, 선임병들의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 등 폭력의 피해로 아파하는 인물이다.

서강대를 중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새롭게 공부한 뒤 2010년 영화 '잠복기'로 데뷔했다. 2014년 영화 '차이나타운' 속 천진난만한 함에 가려진 광기를 폭발시키는 캐릭터로 얼굴을 알

렸다. '차이나타운'을 통해 연출자 한준희 감독과 쌓은 신뢰로 'D.P.'에서 다시 의기투합했다. 래퍼 매드클라운의 친동생이면서 인권변호사 고 조영래 변호사의 조카로도 알려졌다.

영화 '마스터' 속 김우빈의 친구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대리 역 등을 통

해 새로운 '신 스틸러'로 불리며 '척추측만', '서울여행' 등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고교 동창생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배우 박정민은 한 인터뷰에서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산"이라며 친구의 재능을 극찬했다.

●신승호...경험 못한 현실, 사실적으로

2019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 등에 출연했지만 아직 대중적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 'D.P.'를 통해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헌병대 내부만 선임이면서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병장 황장수 역할로, 군 폭력 가해의 상징적 인물이다. 다소 차갑게 보이는 이미지가 캐릭터에 녹아들며 군 복무 시절 한 번쯤 겪어봤을 듯한 '고참'의 전형과도 같다.

사실 아직 군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호기심을 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동덕여대) 2학년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약하며 선후배 위계질서가 뚜렷한 합숙훈련에 익숙했던 시절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됐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행복하지 않다"며 전수생활을 끝냈다.

이후 모델을 꿈꾸며 무대에 섰다. 2016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데뷔했다. 187cm의 키와 굵은 음성으로 매력을 더한다. [연우계 기자 yjh0304@donga.com](mailto:yjh0304@donga.com)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잘나가는 이유있네

국내 최정상급 여성 댄서들이 춤 대결을 펼치는 경연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가 예상을 깨며 선전하고 있다. 출연자들의 면면과 이들의 스트리트 댄스가 아직 시청자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다는 우려를 딛고 방송 초반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방송을 시작한 엠넷의 '스우파'에서는 케이팝 무대와 국내외 댄스대회를 누비고 있는 여성 댄스 8개팀이 경연을 벌이고 있다. 미국 NBC '월드 오브 댄스' 4위 출신인 아이키의 흑을 비롯해 가수 박재범의 안무가로 알려진 허니제이의 팀 홀리뱅,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올림픽 브레이크 부문 동메달리스트인 예리의 YGX, 가수 청하의 안무팀으로 활동 중인 가비의 팀 라치가 등 무대에서 일찍이 이름을 얻어온 이들도다.

각 팀의 댄서 1대1로 맞붙는 '배틀', 같은 노래로 저마다 다른 스타일의 춤을 뽐내는 댄서들의 현란한 무대 등 이들의 활약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스우파'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힘입어 프로그램은 화제성 데이터 집계회



여성 댄서들이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통해 화려한 퍼포먼스 대결을 펼치고 있다. 화제의 주역인 댄서 팀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흑·프리즈우먼·YGX·라치가. 사진제공 | 엠넷

사 굿데이테크퍼레이션이 1일 발표한 8월 4주차(8월23~29일) 비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올랐다. YGX의 리더 리정과 프리드우먼의 모니카는 출연자 화제성 3위와 5위, 팀 라치는 9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댄스 대결 외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깔끔하게 승패를 인정하는 모습" 등에 관심을 드러냈다. '스우파' 예시청자인 회사원 이슬(32)씨는 5일 "춤에 대해 잘 알지 못하

이름난 출연자·1대1 배틀 신선
서로 배려하고 승패 인정 호평
무대 영상 등 140만뷰 기록도

지만 댄서들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멋있게 다가왔다"면서 "각 출연자들의 다른 무대를 찾아볼 정도로 팬이 됐다"고 말했다.

'스우파'의 인기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엠넷 공식 계정이 공개한 무대 영상 클립이 많게는 140만뷰를 넘기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목록에 올랐다. 왁싱(뺨의 회전 동작 등에 중점을 두는 장르), 크럼핑(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변화와 움직임) 등 전문용어의 의미를 정리한 SNS 게시물도 공유되고 있다. 글로벌 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서는 아이키 등 댄서들의 인기를 발판삼아 해외 이용자의 관심도 끌고 있다. 이에 방송이 인파에서는 앞서 춤 경연 포맷으로 3개 시즌을 내놓은 '댄싱'처럼 시즌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화제만큼 논란도 불거졌다. 5일 '스우파' 출연자인 헤일리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연우계 기자 yjh0304@donga.com](mailto:yjh0304@donga.com)

'땀'의 아이콘이 된 '황조지'

(황정민·조승우·지진희)

지진희 2003년 낚시여행 사진 공개
젊은 세대의 '땀'으로도 꾸준히 화제
주연한 작품들의 홍보활동에도 한 몫

배우 황정민, 조승우, 지진희가 최근 함께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흥행작을 잇따라 선보이며 인기를 모아왔던 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친분을 확인하며 트렌드의 또 다른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세 사람은 최근 일명 '땀'(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콘텐츠·트렌드 등)의 주역으로 올라

인상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교류해오며 쌓은 우정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알려지면서 자신들의 각자 성을 딛 '황조지'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친근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다.

'황조지'의 인기는 2003년 지진희가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나 함께 촬영한 사진을 팬카페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이들이 편안한 차림으로 라면을 안주삼아 술을 마시거나 통통 부은 얼굴로 낚시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득 담겼다.

이미 공개 당시에도 "반전 매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사진은 최근 각종 SNS와



'황조지'의 2003년 여행기를 담은 사진. 조승우·지진희·황정민(왼쪽부터)의 편안한 모습이 이채롭다. 사진출처 | tvN 방송 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짤'(웃긴 사진)로 활용돼 더욱 널리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찍은 사진 구도를 따라 여행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황조지 콘셉트 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

각에서는 세 사람을 캐스팅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연한 작품의 제작진은 관련 홍보 활동에 '황조지'의 인기를 적극 반영해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황정민은 8월 18일 영화 '인질' 개봉 이후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SBS '문명특급' 등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뮤지컬 '헤드윅' 무대에 오르고 있는 조승우와 최근 tvN 드라마 '더 로드:1의 비극'의 주연 지진희도 차례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사람들이 '황조지' 사진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면서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연우계 기자 yjh0304@donga.com](mailto: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BTS, 콜드플레이 보컬 마틴과 유튜브 출연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팝스타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과 함께 유튜브 콘텐트에 출연한다. 방탄소년단과 크리스 마틴은 10일 낮 12시45분 유튜브 오리지널 주간 뮤직쇼 '릴리즈드(RELEASED)'에 나선다. 이번 무대는 10월 선보일 예정인 콜드플레이의 정규 9집 수록곡에 방탄소년단이 피쳐링으로 참여했다는 '설'이 가요계 안팎에서 나온 뒤 성사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릴리즈드'에서 이들은 국내외 팬들의 '퍼미션 투 댄스' 수어 댄스 챌린지 영상과 관련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7월 관련 챌린지를 진행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018년 케이팝 가수 최초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비롯해 올해까지 모두 23개의 영국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펜트하우스 3' 학동 참사 장면 삽입 논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3'이 광주시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경북 포항 지진 피해 관련 보도 영상을 삽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작진이 공식 사과했지만 시청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펜트하우스 3'은 3일 방송분에서 악역인 엄기준이 극중 배경인 헤라팰리스에서 폭탄 테러를 벌인 이후 이야기를 그리며 올해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보도 영상을 썼다. 또 2017년 포항 대지진 당시 이재민들의 아픔을 담은 영상도 삽입했다. 이에 시청자 비판이 쏟아지며 제작진은 4일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내부 조사로 경위를 파악해 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현재까지도 "제작진이 참사 피해 아픔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등 시청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엔하이픈 멤버 니키, 코로나19 확진 판정



니키

그들 엔하이픈의 멤버 니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소속사 빌리프랩은 "니키가 자가격리 도중 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치료시설로 이동한 니키는 경미한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엔하이픈은 8월25일 촬영 관련 스태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26일부터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니키를 비롯해 제이코, 정원, 희승, 제이, 성훈 등 7명의 멤버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아 오빠 권순욱 감독, 복막암으로 생 마감



권순욱 감독

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이 5일 39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그동안 복막암으로 투병해왔다. 보이는 이날 SNS를 통해 "고 권순욱 감독이 2021년 9월5일 0시17분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며 부고를 알렸다. 보아 등 유족은 고인의 빈소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친인척들과 장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이는 SNS에서 "오빠야 사랑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꼭 라면 끓여줄 거야 그거 같이 먹어야 해!!"라며 "오빠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내 눈에 가장 맛있고 강한 사람"이라며 애도했다. 권순욱 감독은 보아를 비롯해 god, 백지영, 레드벨벳 등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 발인은 7일 오전 7시이다.